

영국의 평화운동과 노먼 에인절의 평화사상, 1900~1920*

이 내 주**

1. 머리말
2.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평화운동
3.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과 에인절의 평화사상
4. 제1차 세계대전과 에인절의 국제평화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 말에 이르러 통일 후 국가 결속 작업을 마무리한 독일제국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면서 국제적 갈등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보어전쟁(1899~1902)을 수행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영국은 독일 해군력의 증강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 S1A5A2A03034238).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건함경쟁’으로 불리는 군비경쟁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듯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의 한 세대 동안에는 실질적인 군비증강과 ‘적과의 전쟁에 대비하자’는 구호가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가효율화운동(National Efficiency Movement) 및 의무병역제(compulsory military service) 도입과 같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주장들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20세기 초반기는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반대중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대, 즉 평화에의 열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획기적인 한 사건이 전쟁 발발 불과 5년 전에 일어났다. 평화주의(pacifism)를 내세우며 전쟁을 반대하는 노먼 에인절(Norman Angell, 1872~1967)의 책,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이 발간된 것이었다.¹⁾ 1910년에 일반대중에게 선을 보인 이 책은 이후 불과 3년 사이에 2백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년에는 한 해에 5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엄청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이 책은 무려 2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평화에 대한 염원과 신조를 심어주었고, 이러한 공헌 덕분에 에인절은 193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였다.²⁾

1) 원래 에인절은 1909년 *Europe's Optical Illusion*이라는 총 120여 쪽에 달하는 책을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이를 전체 분량이 330여 쪽에 달할 정도로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제목까지 *The Great Illusion: A Study of the Relation of Military Power in Nations to Their Economic and Social Advantage*로 변경하여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공전(空前)의 히트를 기록한 것이었다. *The Great Illusion*은 전체 3개 파트(Part I The Economics of the Case, Part II The Human Nature of the Case, Part III The Practical Outcome), 총 17개장으로 구성되었다.

2) K. Robbins, "Chapter 1 The Anatomy of the Peace Movement" in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Cardiff: Univ. of Wales Press, 1976), p.16. 그리고 에인절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넓게는 유럽, 좁게는 영국에서 평화운동은 19세기 중엽 이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적 및 사회적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마틴 시아델(Martin Ceadel)의 분석처럼, 섬나라라는 안보전략상의 상대적인 이점 및 일찍부터 자유주의가 꽃피어 다양한 주장들이 허용되어 온 정치문화로 인해 영국은 평화운동의 요람으로 인식되어 왔다.³⁾ 다양한 평화운동들 중 특히 에인절의 지적(知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학파의 리처드 콕턴(Richard Cobden)이 평화운동의 큰 산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후에 콕턴주의(Cobdenism)라고 알려진 그의 평화사상은 국제 자유무역주의를 토대로 타국에 대한 내정(內政) 불간섭, 중재를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 상호 군사력 감축 등을 핵심 원리로 삼고 있었다. 그의 제자 및 추종자들은 1870년대 이후 콕턴 클럽(Cobden Club)으로 알려진 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영국 정부의 정책에 스승의 사상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지만, 19세기 말 이래 유럽 열강들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던 탓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에인절의 저서가 발간됐고, 그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대중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인절이 내세운 평화주의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근대 국가시스템 상 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에 결국에는 패자(敗者)는 물론이고 승자(勝者)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비합리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일반대중이 건재하고 있는 한 전쟁은 일어날

위해서는 최근에 발간된 다음 저서가 유용하다: Martin Ceadel, *Living the Great Illusion: Sir Norman Angell, 1872~1967* (Oxford: Oxford Univ. Press, 2009).

3) Martin Ceadel, "Chapter 9 A Legitimate Peace Movement: The Case of Britain, 1918~1945", in Peter Brock & Thomas P. Socknat (eds.), *Challenge to Mars: Essays on Pacifism from 1918 to 1945*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99), pp.144~145.

수 없다는 논지였다.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본질적으로는 콤팩트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보다 진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에인절의 주장은 “전쟁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다”는 대전 직전의 우세한 일반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1914년 8월 대전 발발 이후에도 약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던 에인절의 평화주의는 전쟁의 총력전화가 심화되면서 빠르게 수그러들었다. 즉, 전쟁이라는 극단적 대결 국면 상황에서 “전쟁 발발은 불가능하다”고 외친 그의 주장은 이론적, 논리적 차원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상세계에서나 가능한 ‘공허한 메아리’ 또는 ‘터무니없는 수사(修辭)’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호워드 웨인로스(Howard Weinroth)에 의하면, 그의 책은 ‘신평화주의(New Pacifism)’⁴⁾의 등장을 고무하였고, 전쟁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그의 평화사상은 당시 영국의 자유주의자, 급진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정계의 주요 인사 등 거의 전 계층을 망라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거대한 환상』에서 제시된 에인절의 평화사상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전후하여 한 세대에 걸쳐서 전개된 영국의 평화운동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에인절의 등장 이전까지 영국 평화운동의 흐름을 개관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어서 『거대한 환상』에서 설파(說破)되고 있는 에인절 평화사상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여 이전 평화사상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4) 신평화주의는 에인절이 주장한 바와 같은 새롭고 합리적인 평화주의를 보다 오래 되고 전통적인 케이커주의 및 톨스토이 유형의 평화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세기의 전환기 이래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들 구(舊) 평화주의 및 신(新) 평화주의는 필요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Howard Weinroth, “Norman Angell and the Great Illusion: An Episode in Pre-1914 Pacifism”, *Historical Journal*, Vol. 17(3) (Sept. 1974), pp.551~574를 참고할 것.

통해 대전 직전에 그의 평화사상이 일반대중에게 크게 어필했던 이유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 발발로 곤경에 처했던 에인절이 평화사상의 기본 틀을 ‘전쟁의 무익성’에서 ‘집단안보’를 통한 국제평화 정착으로 전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벌인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평화운동

전쟁과 평화는 서로 대비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곤 한다. 전쟁은 흔히 투쟁과 기근, 죽음과 파괴, 그리고 어두움과 절망 등으로 비유되는데 비해, 평화는 질서와 조화, 화합과 공존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과 평화를 구분하는 선은 분명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도 각국은 흔히 전쟁상태도 그렇다고 평화상태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생존해 왔다. 전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이상(理想)으로서 평화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것은 최근세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평화운동(peace movement)은 한 세기 이전에 미약하게 불붙기 시작한 소수 지식인들의 각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 제고가 하나의 과제로 부상한 것은 나폴레옹 전쟁이 남긴 유산이었다. 전쟁 이전에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인간행동의 여러 측면들이 특히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의문시되기 시작했다. 노예제, 아동 학대, 무절제 등과 같은 각종 사회악이 인간사회에서 추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1816년 6월

런던에서 영국 최초의 평화협회(Peace Society)가 설립되었다.⁵⁾ 주로 웨이커교도(Quakers)였던 이 단체의 주요 인사들은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국제적 연대를 형성,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약 20년 후 이들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중산계급 중심의 캠페인으로부터 믿음직한 우군(友軍)을 얻었다. 19세기 중엽 산업도시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곡물법 폐지운동을 벌이던 콕턴과 브라이트(John Bright)가 그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각국 간에 놓인 무역장벽의 제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쟁 방지책이라고 주장하였다.⁶⁾ 이들이 보기에 전쟁이란 영속적 평화 유지의 근간인 자본주의를 훼손하는 귀족적인 시대착오주의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당시 영국 파머스턴 정부의 강성(強性) 외교정책은 평화운동 진영을 실망시키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크림전쟁(1854~56)은 평화운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일반여론조차도 평화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 헨리 리처드(Henry Richard) 및 윌리엄 크리머(William R. Cremer)와 같은 유력한 평화 운동가들의 활동, 그리고 국제적으로 1899년 헤이그 국제평화회의 개최 등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까지 영국에서 평화운동은 여전히 미약하고 제반 난제에 직면해 있었다. 평화 단체들의 연말 총회보고서를 통해 볼 때, 이들은 개인적 실망, 재정 부족, 그리고 정치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의욕만 있을 뿐 실제로는 내세울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평화운동 지도자들은 평화운동에 대한 당시대 일반대중의 냉담한 태도에

5) Peter Brock, *Pacifism in Europe to 1914*(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72), p.378.

6) 최현미, 「리처드 콕턴(Richard Cobden)과 19세기 국제평화운동과의 관계」 『대구 사학』, 제72집(2003), 349~389쪽을 참고할 것.

크게 실망하였다. 실제로 당시 영국 노동계급은 자국 정부의 제국주의 진출과 보어전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보어전쟁에 대해 다른 지방들보다 비판적 성향이 강했던 웨일스에서 실시된 1900년 선거에서조차 정부의 전쟁정책을 지지한 후보가 당선될 정도였다.⁷⁾

당시 영국의 분위기가 평화운동을 활성화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음을 당대의 식자층도 인식하고 있었다.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홉슨(J. A. Hobson)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평화적 분위기의 취약성을 간파했으며, 정치사상가 홉하우스(L. T. Hobhouse) 역시 평화, 군축, 그리고 개혁 등에 대한 외침들은 이제 모두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점을 인정했다.⁸⁾ 이들 외에도 자유주의 성향의 지성인들은 세계가 조화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원리에 대한 강한 반대 사조에 직면해 있다고 느꼈다. 노동자들은 위대한 대영 제국의 신민이라는 자긍심에 도취되어 더 이상 개혁을 외치는 대중 집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중산계급조차 사회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줄 사회질서의 확립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실시된 19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거둔 압승은 평화주의자들에게 오랜만에 희소식이었다. 자유당 내에는 급진주의자나 비국교도 출신의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었기에 태생적으로 평화운동 진영은 자유당을 지지하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평화운동가들은 자유당이 국제평화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시적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한 예로 당대의 대표적 평화운동가로서 190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던 크리머는 1907년 영 왕실이 주는 기사작위를 받았고, 같은 해에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7)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9.

8) 특히 홉슨 사상에 대해서는 David Long, "J. A. Hobson and Economic Internationalism",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Oxford: Clarendon Press, 1995), pp.161~188을 볼 것.

국제평화회의에 영국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1907년 모임 시에는 자유당 정부의 외무상이던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에게 독일과의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⁹⁾

당시 국제적 상황 전개도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고무하였다. 1907년 그동안 중앙아시아의 전략지대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대립해온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제 유럽의 열강들은 삼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과 삼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이라는 적대적인 양대 군사블록으로 나뉘어 분쟁과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왕실 간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던 영국과 독일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쟁과 평화란 단어는 영국 정치계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에 편승해 평화운동가 혹은 평화주의자(pacifist)라고 불린 인사들도 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¹⁰⁾ 당대의 대표적 활동가 중 하나였던 에드워드 비슬리(Edward S. Beesly)의 평가처럼, 1907년이야말로 영국 평화운동의 역사에서 분기점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정도로 전쟁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다.¹¹⁾

당시 평화운동 계열 팸플릿이었던 *Herald of Peace*가 논평한 바대로 제1차 대전 발발 7~8년 이전에 영국에서 평화운동은 ‘새롭고 보다 강력한

9)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9.

10) 평화주의자(pacifist)란 용어는 1907년에 이르러서야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이들을 범주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왜냐하면 평화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군비증강을 비롯한 전쟁을 고무하는 일체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었는바 당시 평화주의자라고 불린 자들은 대부분 자유당 내 급진파 의원이나 독립노동당 의원들로서 이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정부의 외교정책이 비록 군비증강이나 전쟁을 고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간혹 평화에 대한 자신의 양심 포기과 판단 유보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들 초기 평화주의자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았고, 진정한 평화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점차로 평화주의자에게 평화의 문제는 정당의 정책을 초월하는 숭고한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1)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Oxford: Clarendon Press, 2001), p.176.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¹²⁾ 기존 평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고무적인 분위기를 적극 환영하였다. 평화운동가들은 전국규모의 회합을 개최함은 물론 당시 창설된 전국평화협의회(British National Peace Council) 조직을 활용, 평화운동을 하나의 통합된 움직임으로 발전시키 고자 했다.¹³⁾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및 그로 인한 여론의 지지 덕분에 평화운동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몽상가라는 그동안의 통상적 인식으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흡하나마 실질적인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1908년 런던에서 열린 모임 시에 영국 내 모든 평화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윈저성에서 국왕과 자유당 정권의 신임 수상이던 허버트 애스퀴스(Herbert Asquith)의 환대를 받았다. 이때 향후 모든 국가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분쟁 조정재판소를 통해서 국제 분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¹⁴⁾ 또한 이러한 전국적 모임을 계기로 4년 전에 설립된 바 있는 전국평화협의회는 기반을 보다 굳게 다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향후 이 단체가 그동안 개별적,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온 평화운동 관련 각 분파의 활동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평화운동 내의 이러한 동향은 당시 영국 보수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던 군국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당시 영국에서는 고조되는 전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병역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군의 원로였던 로버츠 원수(Field Marshal Roberts)는 영국민의 애국심 약화 및 국가방위에 대한 무관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전국의무병역제연맹

12) *Herald of Peace*, Jan. 1913, p.12.

13)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77.

14)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11.

(National Service League)의 창립을 주도했다. 이 단체는 1909년 한 해에만 무려 3만 5천명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다.¹⁵⁾

이외에 로즈베리나 밀너 같은 당대의 유력 정치가들도 ‘지금은 전쟁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적극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평화협회의 지도부는 이를 평화의 진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자신들과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 자유당 내 일부 의원들의 캠페인을 지지했다. 군국주의적 사조에 반대하는 일반대중의 모임이 전국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의무병역제의 도입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영국민의 자유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며 오히려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운동은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다. 평화주의자들은 자유당 정부의 의무병역제 도입 포기가 자신들이 실행한 반대활동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실질적 측면에서 이들이 미친 영향력은 미미했다. 국제적으로 열강들 간에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유럽 내에서도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도덕적, 종교적 원리에 기초한 기존의 평화운동은 시대가 요구하는 행동 지침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종교문제에는 무관심했으나 평화적 이슈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 당시 영국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거대한 환상』을 발간, 평화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노먼 에인절이었다.

15)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13.

3.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과 에인절의 평화사상

대전 직전 시기에 벌어진 평화운동의 제반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노먼 에인절을 추종하는 평화운동이었다. 기존의 평화운동 진영이 ‘신평화주의’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대상은 바로 에인절의 캠페인이었다.¹⁶⁾ 그는 1910년 소개된 저술 (『거대한 환상』)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 책은 발간 직후 무려 25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거의 50쇄를 거듭하면서 1백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¹⁷⁾ 자신의 평화사상을 가능한 한 널리 전파하여 전쟁을 방지코자 한 에인절의 노력은 단기간 내에 브리튼 섬을 넘어서 독일과 미국으로까지 전파되었다.¹⁸⁾ 특히 1909년 이래 영국에서는 독일과의

16)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89.

17)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16.

18) 1913년에 에인절은 직접 독일을 방문, 주요 도시들(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뮌헨, 괴팅겐, 베를린 등)을 순회 강연하면서 주로 독일의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미국의 경우, 제1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하여 조속한 종전을 위한 미국의 역할 수행을 독려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에인절에 대한 명성은 이미 그의 책이 출판되었을 시에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나 서평을 통해서 식자(識者)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1911년 초반에 에인절의 『거대한 환상』에 대한 미국 언론매체의 반응을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사고를 한껏 자극하고 진정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은 독자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는 당대의 수많은 저명인사들 및 비평가들로부터 무한한 칭송을 받고 있다(*New York Times*)”; “인간의 진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에 잡고 읽어보아야만 하는 한 시대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책이다. 비록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핵심 논지는 거의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이다(*Boston Herald*)”, “최근에 발간한 책 『거대한 환상』에서 저자 에인절은 우리들에게 감정적 혼돈 속에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듯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선사하고 있다(*Life*)”, “에인절은 그동안 평화운동 단체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주장해온 것들보다도 보다 설득력 있는 제안들을 한꺼번에 그의 책에서 선사해 주고 있다(*Army and Navy Journal in New York*).”

건함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해군예산의 증액 문제가 재차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호전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열세한 입장에 처해 있던 평화주의자들은 이 한 권의 책으로 자신들의 신조인 자유무역과 군비축소 정책을 새롭게 제기하는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기존 평화사상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론적 공백을 메꾸면서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당시 영국의 식자층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영국 국내에서의 반향이 대단하였다.¹⁹⁾ 1913년까지 전국적으로 런던, 맨체스터, 리즈, 글래스고를 비롯한 영국의 도시들에서 50개 이상의 에인절 평화사상 연구그룹이 결성됐고, 적어도 10개 대학에서 토론클럽이 등장하였다.²⁰⁾ 역사가 키스 로빈스(Keith Robbins)의 평가에 의하면,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제1차 대전 발발 수년 전 기간에 영국에서 국제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회자된 개념이었다.”²¹⁾

19) 에인절의 책에 대한 영국 언론들의 반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다른 어떠한 책도 『거대한 환상』보다도 주목을 끌거나 사고를 자극하는 책은 없다(Daily Mail)”, “노먼 에인절은 우리 세대의 저술가로서는 아마도 18세기에 조나단 스위프트 이래 가장 위대한 팸플릿 작가들 중 하나인 콕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Nation)”, “에인절의 중심 태제는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여 1756년에 일어났던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또 다른 외교혁명을 촉발할 것이다(Edinburgh Review)”, “비판자들은 에인절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분석에서 어떠한 심각한 결점을 결코 찾아 내지 못할 것이다(Daily News)”,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읽어야만 하는 책이다(War Office Times)”, “최근 수년 동안 이토록 흥미롭고 우리를 들뜨게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London Investors' Review)”, “어느 날 갑자기 에인절이 그의 책에서 제기한 주장들은 온 유럽의 정치가 및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The New Statesman).”

20)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당시 학생회 회장으로서 이후 에인절의 핵심 추종자이자 조연자로 활동한 해럴드 라이트(Harold Wright)의 주도하에 에인절의 평화사상을 스터디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후원에 부응하고 평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에 에인절은 1913년에 *War and Peace*라는 이름의 월간 잡지를 창간하였다(J. D. B. Miller, *Norman Angell and the Futility of War*, London: Macmillan, 1986, p.7).

21) Keith Robbins, “Public Opinion, Press and Pressure Groups”, in F. H. Hinsley (ed.), *British Foreign Policy under Sir Edward Grey*(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7), p.77.

평화주의에 대한 그의 새로운 메시지는 정복전쟁의 경제적 불합리성이라는 단순한 명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기존에 평화운동가들이 내세웠던 도덕성(morality)보다 오히려 자기이익(self-interest)을 강조한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실천 가능한 전쟁반대 이론으로 인식되어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자신의 책에서 에인절은 각국의 군사력과 이에 내재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점(利點)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평화운동의 주창자들은 간혹 전쟁은 비록 그것이 비도덕적일지언정 승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어느 국가든지 타국의 재산을 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평화주의자들의 도덕적인 호소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던 평화운동에 대해 에인절은 시의 적절하게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던 것이다.²²⁾ 그의 사상은 평화에 대한 참신한 논의를 갈망하고 있던 평화주의자들은 물론이고 국제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할 묘책을 찾으려 초심초사하고 있던 유력인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근본적으로 에인절은 전통적인 평화운동과 그 맥을 달리하였다. 그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강조하고 전쟁을 전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평화사상을 갖게 된 배경에는 평범하지 않은 그의 성장 배경이 있었다.²³⁾ 실제로 1910년 책이 주목받기 이전까지

22) 에인절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도 영속적으로든 일정 기간이든 간에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타국의 교역활동을 파괴하거나 크게 훼손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교역은 천연자원의 존재 여부 및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만일 독일의 침략으로 인해 영 제국이 완전히 몰락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에 기초하고 있는 산업과 금융은 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일 측 자본도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다; (3) 바로 이러한 상호의존적 구조 때문에 패전국으로부터 어떠한 공물을 수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4) 어떠한 국가도 영제국의 식민지들을 차지한다고 해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영국은 이러한 손실로 인해 비록 정서적으로는 손상을 입을지 모르나 물질적으로는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Norman Angell, *The Great Illusion*, 3rd ed. (London: William Heinemann, 1911), pp.27~29를 볼 것.

23) 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Albert Marrin, "Chapter 1. Finding the Life's

그는 전문적인 평화운동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 영국의 링컨셔에서 태어난 그는 사업으로 성공한 부친 덕분에 유년시절을 영국에서 보낸 후 고등학교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대학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닐 수 있었다. 이후 잠시 영국으로 귀국했다가 10대 후반에 도미(渡美)하여 1890년대의 대부분을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소떼를 돌보는 카우보이로 일했다. 이때 틈틈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덕분에 1898년 미국의 군소 신문사들을 위해 일하는 파리 주재원이 될 수 있었다. 파리에서 일하던 중 1905년 영국의 신문 재벌 노스클리프 경 소유의 *Daily Mail*지 유럽 담당 편집자로 채용되는 행운을 잡게 되었다. 이때부터 에인절은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군비경쟁과 국제적 위기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복잡하게 뒤엉킨 국제문제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신문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그는 집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09년에 그는 자비(自費)로 100여 쪽 분량의 『유럽의 착시(錯視, *Europe's Optical Illusion*)』라는 책자를 발간²⁴⁾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수정 및 보완한 『거대한 환상』으로 일약 출판계의 신데렐라로 부상한 것이다. 그는 책 판매는 물론이고 영국 전역에서 쇄도하는 강연 요청에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에인절이 빠르게 명성을 얻은 이면에는 당시 국왕 에드워드 7세의 절친으로 보수진영의 대표적 정치가였던 에셔 경(Lord Esher)의 적극적 후원이 있었다.²⁵⁾ 에인절의 책을 읽고 “산업화된 다른 국가를 쳐들어가는 침략

Work”, in *Sir Norman Angell*(Boston: Twayne Publishers, 1979), pp.15~55를 볼 것.

24) 이때 에인절은 *Daily Mail*에 기고자로 명기되고 있던 자신의 긴 본명(Ralph Norman Angell Lane)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간 이름인 Norman Angell이라고 필명을 사용했는데, 『거대한 환상』이 대히트를 치면서 이후 그는 Norman Angell로 알려지게 되었다.

25)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15.에서 경은 에인절의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하였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단순히 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행동으로 옮겨

전쟁은 무익하다(futile)”는 그의 논지에 크게 공감한 에셔 경은 당시 외무상이던 그레이에게 이 책에 대해 말했고, 후자는 런던 길드 홀에서 행한 영국의 외교정책 관련 연설에서 에인절의 주장을 언급했다. 또한 당대의 저명한 기업가였던 리처드 가턴 경(Sir Richard Garton)은 에셔 경의 조언 및 제안에 따라 사재(私財)를 출연, 1912년에 에인절 후원재단(Garton Foundation)을 설립했다.²⁶⁾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기존 평화사상과는 달리 에인절의 평화사상(Norman Angellism)은 현실적 측면에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었다. 군비 증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군비축소를 위한 호소는 무의미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거대한 환상』에서 에인절은 과거 시대에 전쟁은 승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었을지 모르나 산업화된 오늘날에는 기술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으로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및 국제질서의 필요성이 높아짐으로써 전쟁은 승자나 패자 어느 쪽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는 경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아마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의문의 여지없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감히 여러 독자들에게 에인절이 최근에 선보인 『거대한 환상』을 여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책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상을 뒤집는 강도(強度)에서 갈릴레오의 지동설도 에인절의 논제에 견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26) 여러 명의 은행가들과 더불어 에셔 경과 전임 수상이었던 발푸어(A. J. Balfour)가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 기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널(*War and Peace*, 1913년 10월 초판 발간)을 발행하고 스터디 과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는 에인절이 직접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에인절은 미국의 카네기재단 및 론트리 그룹과 같은 부유한 퀘이커교도 가문으로부터도 기금을 받았다. 이토록 에셔가 에인절의 책에 집착한 이유는 당시 심지어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내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던 위대한 국가건설 및 국부증대의 중요 수단으로 전쟁을 옹호하는 기류에 대한 반대 논리를 바로 에인절의 논지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렬한 호응에 보응한다는 맘이 있었는지 에인절은 『거대한 환상』의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1914년 초에 출판한 또 다른 책(*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olity*)을 에셔 경에게 헌정하였다.

그동안 인정되어 온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상업적, 사회적 이점은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국가의 부와 번영은 이 나라를 침략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강대국들의 자비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되고 있는 이러한 이론은 순전히 착시(錯視)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군사적, 정치적 힘은 해당 국가에 어떠한 상업적 이점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부를 빼앗고 파괴하는 것 역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정복함으로써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²⁷⁾

다시 말해, 군사적 승리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는 발상은 이제는 일종의 ‘거대한 환상(great illusion)’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전쟁은 당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번영의 초석이 되는 국제교역 및 금융제도를 와해시킴으로써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재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평화사상의 핵심 개념들 중 하나인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개념은 그가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것은 아니었다. 이는 19세기 중반 국제 평화운동의 대부분인 콕턴의 주장에다가 이후 발달된 국제 금융망의 중요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콕턴이즘(Cobdenism)이라 불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을 재구성한 것이었다.²⁸⁾ 콕턴이 정부 간섭이 없는 자유무역을 지지한 것처럼 에인절 역시 평화를 달성하는데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비록 자신의 평화사상에서 정부 역할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는 근본적으로 일반대중의 역할을 신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을 세계평화 유지의 주역으로 인식한 일부 평화주의자들과는 출발부터 구별되었다.

그렇다고 에인절이 콕턴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었다.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지적 선배였던 콕턴에 비해 보다 자유주의적이면서도

27) Norman Angell, *The Great Illusion* (1911), p.vi.

28)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90.

덜 급진적이었다.²⁹⁾ 콕턴과는 달리 그는 귀족, 군수업자, 그리고 신문발행인 등을 비난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금융이익의 상호의존(mutuality) 관계에 대한 이론을 널리 전파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논리적 기반 위에서 서유럽 강대국들 간에 전쟁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에인절은 ‘전쟁의 무익성’을 내세우면서 당대의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던 정복과 힘의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어느 한 국가가 무력을 통한 대립, 군국주의, 전쟁이나 정복 등의 수단으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국제적 금융 및 교역의 발달로 인해 각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한 산업국기의 운명은 다른 국가의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국제 금융은 매우 상호의존적이고 교역 및 산업과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적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자국의 교역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적 힘이나 군사력이 현실적으로 국가 간의 국제교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없다. 고로 이러한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소국의 상인이나 제조업자들도 국제시장에서 강대국의 산업기들과도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³⁰⁾

에인절 평화사상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일반대중에 대한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에인절이 느끼고 있던 딜레마는 일반국민들은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반대되는 정부의 군비증강과 호전적인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사실이었다. 일반대중은 평화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³¹⁾ 하지만 이들이 전쟁 발생 원인에 대해 아무리 많이

29)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91.

30) Norman Angell, *The Great Illusion* (1911), pp.vii.

31) J. D. B. Miller, “Chapter 5 Norman Angell and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에인절은 교육을 통해서 일반대중이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4. 제1차 세계대전과 에인절의 국제평화 활동

평화에 대한 에인절의 과도한 낙관주의는 심지어는 흡슨으로부터 ‘평화주의자의 환상’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³²⁾ 비단 흡슨과 같은 학자들만 에인절의 평화사상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자유주의적 평화주의는 당대의 평화 관련 저널들로부터 크게 두 방향에서 비판을 받았다. 우선,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금융을 평화문제에 접근하는 토대로 보기에는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오직 심오한 심적 격변에 기초한 도덕적 저항을 통해서만 전쟁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에인절의 평화사상에 내포된 물질주의를 비판하였다. 그가 19세기 중엽 이래 평화운동 안에서 확산되고 있던 일종의 세속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평화 운동가였던 스미스(E. G. Smith)는 당장은 에인절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그의 평화사상으로는 평화를 구출할 수 없기에 평화운동은 예전처럼 순수한 도덕적 열정의 시대로 뒤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³³⁾

Year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 p.108.

32)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91.

33) 이러한 비난에 대해 에인절은 *Concord*지에 “Are we sordid?”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응수하였다(*Concord*, Oct. 1913, pp.93~94). 그는 스미스의 사상은 수도원에서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고 있는 소수의 성자들에게나 어필할 수 있을 뿐 결코 일반대중의 사고에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고 비판하였다.

에인절의 평화사상에 대한 두 번째의 도전은 급진주의 진영으로부터 왔다. 일반적으로 급진주의자들은 군수업자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에인절이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듯하자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예를 들어, 『거대한 환상』에 대한 서평에서 패러(J. A. Farrer)는 에인절의 책 속에서 “진정한 국가이익과는 반대로 사익(私益)을 추구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급의 이익이 옹호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³⁴⁾ 왜냐하면 에인절은 국제적 경제활동, 특히 자본의 활발한 이동을 강조하였는데 당시 군수업체들이 국제적으로 거대 자본집단으로 대두하면서 에인절이 군수업체들의 활동까지도 허용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당대 영국의 대표적 군수업자들 중 하나였던 윌리엄 암스트롱(William Armstrong)이 대금(貸金)만 지불한다면 세계 어느 곳의 누구에게든지 자사(自社)가 제작한 전함을 판매할 수 있다고 천명하자 에인절의 평화사상에 대한 급진주의자들의 의구심은 심화되었던 것이다.³⁵⁾

무엇보다도 에인절에게 결정적 타격을 준 사건은 1914년 8월 초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비록 그 자신은 대전 전에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거대한 환상』과 다른 소책자 등을 통해 본질적으로 유럽의 선진 산업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창해온 터인지라 어찌되었든 대전 발발로 인해 그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 산업국가인 영국은 중간자적 위치에서 이 충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의 소망과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 발발 직후 영국정부가 내린 신속한 참전 결정은 그동안 전쟁의 무익성을 주장하며

34) *Concord* (Dec. 1910), pp.141~143.

3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줄고 「W. 암스트롱과 영국 군수산업의 성장, 1854~1900」 『영국연구』 제28호(2012. 12월), 37~64쪽을 참고할 것.

평화사상을 설파했던 에인절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유럽대륙에서의 전쟁 발발 소식에 처음에는 실의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던 에인절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전쟁의 무익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이론을 제시해 온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면서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는 대전 발발 직전에 일부 인사들과 함께 영국의 참전 반대를 촉구할 목적으로 중립연맹(Neutrality League)을 창설했다.³⁶⁾ 이들은 영국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채 유럽대륙 교전국가들 간에 평화 교섭을 중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서유럽 국가들 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결국에는 러시아가 유럽을 압도하는 군사국가로 대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후인 1914년 8월 4일 영국정부가 참전을 선언하면서 중립연맹은 유명무실해 졌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그의 활동이 비애국적으로 비친 탓에 에인절은 대전 이전 자신의 적극 후원세력이던 보수진영 인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에인절은 대외적으로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정치적으로 전쟁 반대를 지지한 인사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던 노동당으로 옮겨갔다. 여기에서 그는 노동당 내의 급진적 정치가들 - 트레벨리언(Charles Trevelyan), 모렐(E. D. Morel), 폰손비(Arthur Ponsonby), 스노든(Philip Snowden), 맥도날드(Ramsay MacDonald) 등 - 과 민주통제연합(Union of Democratic Control, UDC)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다.³⁷⁾ 전쟁은 에인절을 보다 좌파

36) J. D. B. Miller, "Chapter 5 Norman Angell and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 p.101.

37) M. Swartz, *The Union of Democratic Control in British Politics during the First World War* (Oxford: Oxford Univ. Press, 1971), pp.21~23. UDC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으나, 에인절은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가

성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자신이 UDC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되자 그는 이제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얻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물론 에인절 자신도 사회주의 진영에 속한 정치가들과의 동참 활동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불편함을 느꼈다. 비록 현실정치에서는 노동당에 발을 담갔으나 본질적으로 그의 정치적 성향은 19세기 영국 중산계급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잇는 급진주의(radicalism)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에인절이 팔짱만 끼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대전 이전 자신이 제기한 국제관계 및 평화사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응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에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는 영토할양이나 배상금 부과가 없는 평화, 모든 국가가 별다른 제약 없이 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평화의 수립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될수록 영국의 일반대중에게 자신의 견해를 어필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점을 깨달은 에인절은 활동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중립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에서는 자신의 평화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³⁸⁾

이러한 개인적 여건에 더해 외부적 상황도 에인절의 도미(渡美) 결심을 도와주었다. 전쟁상태가 지속되면서 1915년에 접어들어 UDC가 내세운

능한 한 정치적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고 주로 UDC의 목표 및 이념 제기와 같은 교육관련 이슈에 관심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는 기질적으로 현실정치에의 참여를 좋아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대전 전에 가턴재단과 같은 보수당 진영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았던 터인지라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기가 난처했기 때문이다. 노동당 진영에의 가입으로 그가 느낀 불편한 심경은 대전 이후 잠시 동안 노동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시에도 지속되었다(Angell, *After All*, pp.227~228). 어찌되었든 에인절처럼 일반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가입한 덕분에 설립 초반에 UDC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38) A. S. Johnson, "Norman Angellism Applied", *New Republic*(21 Nov. 1914), pp.20~22.

목표들 -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 및 비밀 외교정책 반대, 각국 대중정당 중심의 전후처리 논의, 패전국에 대한 응징 반대 및 임의적인 국경선 조정 반대 - 이 대외적으로도 관심을 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밀외교의 철폐 및 국제적인 상호이해를 통한 평화의 모색은 이 시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을 비롯한 미국 진보주의 진영의 호응을 받았다. 때마침 1915년 초에 카네기재단이 그해 여름에 코넬 대학교에서 개최될 하계 캠프에 에인절을 강사로 초청한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드디어 그해 5월 중순 에인절은 미국행 여객선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넜다. 계획된 하계 스쿨 종료 후 그는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평화운동을 지속하였다. 그는 저술활동을 통해 유럽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후 미국이 국제평화를 위해 취할 리더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⁹⁾ 무엇보다도 당시 미국 정계의 실력자였던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윌슨 대통령에게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⁴⁰⁾

미국 체류 기간에 그는 무엇보다도 전후에 현실화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운동의 핵심 인물들 중 한 명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⁴¹⁾ 전쟁이 진행되면서 에인절은 비인회담 이후 형성되었던

39) 이와 관련된 대표적 저술로 *America and the New World-State: A Plea for American Lead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1915)을 들 수 있다.

40) 과연 에인절이 어느 정도나 윌슨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에인절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사적으로 윌슨을 한 차례 만나 대화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짧은 것이었고, 에인절은 주로 저술활동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기하였다(Norman Angell, *After All: The Autobiography of Norman Angell*, New York: Farrar, Straus and Young, 1951, pp.210~211). 예컨대, 에인절은 앞에서 언급한 *America and the New World-State* 이외에 여러 글들(*The Dangers of Half-Preparedness*, *The World's Highway*, *The Political Conditions of Allied Success*, *War Aims* 등)을 *New Republic*에 기고한 바 있었다.

41) 전간기 동안에 에인절은 세실 경(Sir Robert Cecil) 및 머레이(Gilbert Murray) 등과 더불어 국제연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다. 영국 국내정치와 관련해서는 그는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노동당에 가담하였고, 1929~31년에는 브래드퍼드 북

유럽의 협조를 뒤이은 새로운 형태의 ‘유럽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원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포함하는(곧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을 망라하는) 일종의 동맹체제인 ‘국제연맹’의 설립으로 나아갔다. 이는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안보는 물론이고 정치적 안보까지 책임지는 국제기구였다. 이는 특히 1930년대에 그가 역설한 이른바 ‘집단안보’라는 개념에 근접한 것이었다. 실제로 종전 후인 1919년에 애인절은 베르사유 평화조약 회담 현장을 참관할 목적으로 파리로 갔다. 이곳에서 그는 논의되고 있는 조약의 내용들이 평화회담 개최 이전에 자신이 발표한 글에서 비판적으로 예견한 바대로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목도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⁴²⁾

집단안보에 대한 논의는 콤팩트학파의 불간섭주의와 유사한 견해를 견지해 오던 애인절의 초기 입장이 바뀌었음을 암시했다.⁴³⁾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여론의 호응이나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정복전쟁의 무익성을 알리는 데 열중했듯이 이제는 집단안보의 원칙과 논리를 설파하는데 주력하였다. 국제적 무정부 상태하에서 자국만의 국가안보를 추구하려고 할 시 이는

쪽(Bradford North) 지역구의 노동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였다. 1931년에 그는 맥도날드 수상의 추천으로 기사작위를, 1933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30년대에 국제연맹을 통한 집단안보를 강력하게 지지한 그는 1935년 무솔리니의 에티오피아 침공에 대한 국제연맹의 미온적인 대처에 크게 실망하였다. 또한 그는 점증하는 국제적 긴장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던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그 노선에 공감하면서 윈스턴 처칠을 적극 지지하였다. 제2차 대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그는 대전 후 영국으로 되돌아 와서 여생을 보내다가 1967년에 죽었다. 평생 그는 국제관계와 관련된 40권 이상의 책을 발간하였다. 그에 관한 개인 자료들(personal papers)은 그의 유지에 따라서 미국 인디애나 주 먼시(Muncie)에 소재한 Ball State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2) 그가 발간한 글은 *The Peace Treaty and the Economic Crisis of Europe* 이었다.

43) J. D. B. Miller, “Chapter 5 Norman Angell and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 p.112.

국가 불안이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질서 있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규칙, 법, 그리고 기구 등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범세계적 차원의 무력 공동체가 요구되었다.⁴⁴⁾ 에인절은 이러한 논리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등이 나치 독일의 호전성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회피하고 있던 1930년대 동안 국제연맹의 운용에, 그리고 제2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의 역할에 적용했다.

5. 맺음말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에인절은 제1차 대전 발발 수년 전에 『거대한 환상』을 발간했다. 여기에서 그는 전쟁의 ‘무용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근거로 각국 정부가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논지를 펼쳤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 열기는 기존 평화운동과 결합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제1차 대전이 발발하기 몇 달 이전에 에인절은 장차 벌어질 전쟁은 과거 전쟁에 비해 덜 잔인할 것이라는 예견을 담은 또 다른 소책자를 발간했다.⁴⁵⁾ 하지만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그의 예상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쟁 기간 내내 그는 ‘이상주의’의 화신으로 지목되어 현실주의 진영의 주 비판 대상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에인절은 현실 감각을 결여한 채 공상적인 평화사상을 내세운 인물일까? 유럽 열강들이 치열하게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던 대전 이전 상황에서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과연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었을까?

44) N. Angell, “International Anarchy”, p.48.

45) Norman Angell, *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olity*(London: Heinemann, 1914).

그의 주장과는 달리 군비경쟁이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승리라는 것이 ‘거대한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무익성(無益性)을 주장한 그의 사상이 ‘거대한 환상’은 아니었을까?

물론 에인절이 활동한 전(全) 시대를 관통해 그의 주장이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견해는 ‘이미 증명을 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일반화는 공개적으로 비난을 자초하였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에 대한 혐오로 인해 그는 주권국가 및 이에 대한 해당국 국민들의 귀속의지를 저평가하는 우를 범하였다. 또한 이성의 능력을 과도하게 신뢰한 탓에 일반대중의 전쟁에 대한 충동이나 욕구가 교육을 통해 억제될 수 있다고 과신하였다. 국제경제에 대한 콧단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탓에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이득이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식민지는 유지비용이 더 소요되고 그곳의 주요 자산을 식민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집착한 탓에 그는 식민지가 나름대로 식민모국에 이득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했다.

오늘날 에인절의 평화사상이 무시되고 있다면, 이는 아마도 국제관계에서 합리주의(rationalism) 사조가 제2차 대전 이후에 낡은 사상으로 낙인찍히고 그 반대로 현실주의(realism)가 주류로 대두했기 때문일 것이다.⁴⁶⁾ 에인절은 군비 증강은 그 자체로 서로 간에 적대감을 고무할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적대적인 양국 국민들 간에 협력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전쟁 이외에는 군비경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에인절의 견해는 오늘날 상황에서 바라보았을 때 비현실적인 요소를

46) J. D. B. Miller, “Chapter 5 Norman Angell and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 p.118.

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20세기 전반기에만 유효했던 것일까? 다시 말해, 그는 실현될 수 없는 주장만을 외친 ‘이상주의자’에 불과했던 말인가? 그렇지 않다. 그의 사상 중 상당 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름대로 의미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⁴⁷⁾ 1980년대에 접어들어 그의 평화사상 및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재평가가 볼드윈(David Baldwin), 밀러(J. D. B. Miller), 그리고 나바리(C. Navari) 등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이들은 20세기 전체를 관통해 볼 때, 에인절이 내세운 국제관계 이론은 상당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수정주의적 시각을 내세운다.⁴⁸⁾ 에인절의 주저인 『거대한 환상』은 대표적인 반전(反戰) 저작이지만, 동시에 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를 크게 발전시킨 역작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평화운동에서 에인절이 이룩한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및 이론적 발전을 간과하는 것과 같다. 에인절이 체계화한 상호의존 관계는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상호의존이론이며, 국제적 시스템의 변화를 사회변화와 접맥시킨 선구적 연구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거대한 환상』에서 그가 역설한 산업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에 대한 논제는 중요하고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에인절이 평화를 유지하는 힘으로서 상호의존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측면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특히 국제관계에서 현대까지도 여전히 유용하고 어느 면에서는 자본주의

47) 예컨대, 그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실체, 산업화된 강대국들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무익함, 국가 간 상호의존의 중요성, 끊임없는 군비경쟁의 속성, 민족주의와 같은 오도된 열정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의 측면에서 사상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48) C. Navari, “The Great Illusion Revisited: the International Theory of Norman Angel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1989), p.341.

화가 만연한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분석적 개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⁴⁹⁾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그 시대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평화의 수사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사상적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는 ‘평화의 복음’임에 분명하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제1차 세계대전, 노먼 에인절, 거대한 환상, 평화운동, 상호의존성, 전쟁의 무의성, 리처드 컵턴, 신평화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민주통제연합

49)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David Baldwin, “Interdependence and Power: A Conceptu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4(1980), pp.471~506 ; C. Navari, “The Great Illusion Revisited: The International Theory of Norman Angel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1989), pp.341~358을 참고할 것.

<ABSTRACT>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and Norman Angell's Ideas on Peace, 1900~1920

Lee, Nae-joo

In the years before the First World War, Norman Angell(1872~1967) published a book, *The Great Illusion*, which analyzed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of industrial states, the ills of armed conflict, and the disutility of war. It was widely acclaimed and promoted with fervor by proponents of the peace movement and even by the general public. It had been sold over two million copies from 1910 to 1913, and had been translated into twenty-five languages.

Angell's main theme was the futility of war. According to him, the notion that one nation could gain interests by armed confrontation was a 'great illusion'. Large industrial powers had become so economically interdependent with one another that the war was profitable neither for victor nor for loser. Angell's ideas on peace cannot be lightly dismissed, for in th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Great War they inspired the 'New Pacifism' and also exercised a pervasive influence upon the minds of peace movement activists and politicians, deluding them with an optimistic view of world peac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will analyze his ideas on peace 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Angell's doctrine, coming as it did at a moment of crisis in European affairs, contributed to rejuvenate the old faith in the peace movement and to reinforce the tradition of liberal internationalism in Britain. By doing this it refurbished and perpetuated the 'pacifist illusion'. And his discussion on industrial states' interdependence and the underlying irrationality of war is significant

and useful even today, especially in examining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ey Words : The First World War, Norman Angell, The Great Illusion, Peace Movement, Interdependence, Futility of War, Richard Cobden, New Pacifism, Liberal Internationalism, Union of Democratic Control

